

李後白의 七言古詩에 드러난 儒敎思想의 詩的 形象化

金東河*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7언고시의 창작 동기와 배경
- III. 유교사상의 시적 형상화
 1. 예악을 통한 덕치의 실현
 2. 효도와 의리 사상의 선양
 3. 비현실성에 대한 부정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靑蓮 李後白(1520~1578)은 조선 후기의 문학 평론가인 金昌協이 “호남의 시는 이청련으로부터 비로소 당을 배웠는데, 白光勳·崔慶昌이 대를 이어 더욱 사원에 성가가 있었다”¹⁾고 평한 것처럼 당시의 송시풍 위주의 호남시단을 당시풍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자신의

* 서강정보대학

1) 金昌協, 「苔川集序」, 『農巖全集』, “湖南之詩, 自李靑蓮後白始學唐, 因以崔白代興, 益有聲詞苑.”

문하에서 백광훈과 최경창을 길러냄으로써 우리 한문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三唐詩人의 출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백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90년대 초까지 주로 이조판서를 지낸 청백리로서만 언급되었다. 그 결과 그의 문학에 대한 학계의 연구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몇 편의 소논문²⁾과 한 편의 학위논문³⁾만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들 논문들이 한결 같이 국문시조인 <瀟湘八景歌>와 근체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한시의 경우 호남학당의 선구자란 명칭에 걸맞게 당시풍의 절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李後白의 문집인 『靑蓮集』에는 절구·율시·배율·고시 등의 한시 100여 수가 실려 있다. 이 중 고시는 총 13수로 5언고시가 2수, 7언고시가 11수로 각각 되어 있으나, <菩薩蠻>은 중국 한시에 흔히 보이는 동일 제목의 작품을 글자의 위치만 바꾸어 나열한 8구의 미완 작품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7언고시는 10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10수의 7언고시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원을 배경으로 한 전설을 시화한 <鐵狗行>이란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국의 신화, 전설, 설화, 고사성어 등을 소재로 작자의 감회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20여 년간을 관직에 몸담은 관료 문인이자 정통 유학자로서의 그의 시적 특질이 당풍적 경향의 근체시에 못지않게, 회고적 경향의 장편의 7언고시에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載道文學家로서의 그의 문학은 7언고시라는 양식

2) 김기현, 「이후백과 그의 시조」, 『시조학논총』 2집, 한국시조학회, 1986.

정용수, 「이후백의 瀟湘八景歌 辨證」, 『文化傳統論集』創刊號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3, 8), 419~434쪽.

전형대, 「청린 이후백 선생의 선비정신과 시」, 『京畿語文學』 제8집, 경기대, 1994.

김신중, 「瀟湘八景歌의 慣習詩의 性格」, 『古詩歌研究』 제5집, 韓國古詩歌研究會, 1998.

김동하, 「청린 이후백 시의 풍격」, 『고시가연구』 제1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김대현, 「청린 이후백 한시에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경향」, 『한국언어문학』 제5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4.

3) 김동하, 『청린 이후백의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을 빌려 『詩經』의 ‘풍간’ 정신과 ‘시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후백의 작품 중 장편의 7언고시에 나타난 유교 사상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7언고시의 창작 동기와 배경

조선왕조는 빈번하게 중국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신년 하례 사절인 正朝使를 비롯하여, 황제 부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聖節使와 千秋使, 동지 때 가는 사절인 冬至使와 같은 연례 사절뿐 아니라 사은사, 주청사, 진하사, 진위사, 변무사 등 사절단의 명칭도 보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후백은 일생 동안 2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가 나이 50세 되던 1569(선조2)년 성절사의 자격으로 중국에 간 것이다. 이를 통해 이후백은 당시 중국의 선진 문화와 문물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사행 길에 오르는 사신으로서 겪게 될 어렵고 힘든 과정은, 思庵 朴淳이 성절사의 자격으로 북경을 향해 떠나는 이후백을 전송하며 남긴 <送李季眞赴京>이라는 제목의 작품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⁴⁾ 다음은 두 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玉案新承命	임금님께 새로이 명령을 받아
銀臺暫輟班	승정원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네.
遼雲迎度塞	요 땅의 구름은 국경 넘어가는 것 맞이할 게고
燕日引歸關	연 땅의 해는 산해관으로 돌아가는 것 인도할 게요.
旅夢隨魂斷	나그네 꿈은 혼을 따라 끊어질 게고

4) 이후백이 성절사로 중국으로 떠나는 것을 전송하는 박순의 시 <送李季眞後白赴京>의 두 번째 작품은 “江漢移仙仗 燕雲啓紫微 雁山當魏闕 狐塞入王畿 戈偃三邊靜 恩垂四海歸 榆關一痕月 長照使臣衣”와 같다.

鄉書待鴈還 고향의 편지는 기러기 편에 돌아오리라.
 幽陵霜雪苦 유주는 서리와 눈이 괴로우니
 休遣損青顏 젊은 얼굴 손상되게 하지 말구려.

이후백이 都承旨로 임명받았던 때가 나이 50세 되던 해인 1569년 8월 26일이었으니⁵⁾, 그 이후 쓰여진 작품으로 판단된다. 함련은 이후백을 비롯한 사신 일행이 지나게 될 노정을 상상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절단은 주로 육로를 이용하여 북경으로 들어갔다. 사신들은 주로 한양을 출발하여 평양을 거쳐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봉황성, 요동 별관과 심양과 대릉하에 이어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이르는 최단 노선을 선택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가 1천리, 의주에서 북경까지가 2천리 도합 3천리에 달하는, 나귀를 타고 한 달여가 걸리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경련은 머나 먼 타국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돌아오는 기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미련은 사신 일행이 겨울을 맞아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염려한다. 혹독한 추위로 이름난 북방의 유주 땅을 지나야 하는 친구의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는 애뜻한 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두 번째 중국 방문은 그의 나이 54세 되던 선조 6(1573)년 2월 28일에 宗系辨誣使의 자격으로 북경에 가서⁶⁾ 6개월 반 만인 9월 16일에 돌아왔던 것이 그것이다.⁷⁾ 중계변무란 태조 3(1394)년 조선에 온 명의 사신 黃永奇 등 3인이 해악산천의 신에게 제사하는 ‘告祭祝文’ 중에 태조 이성계를 고려 말 간신인 李仁任의 후손으로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명나라 역사책에 오랫동안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은 것을 말한다. 이는 태종부

5) 『宣祖實錄』二年 八月二十六日(丁卯), “以李後白爲都承旨 柳希春爲副承旨 尹澍爲同副承旨”

6) 『이조실록』 173, 『선종소경대왕실록』 제7권 2월 기묘일 조에는, “제의하러 가는 사신 이후백과 윤근수와 서장관 윤탁연이 중국의 북경으로 떠났다.”라고 하였고, 유희춘의 『미암일기』 2월 28일 조에서는 “주청사 이후백과 윤근수와 서장관 윤탁연이 출발하여 중국의 연경으로 향했다.”라고 하였다.

7) 『이조실록』 173, 9월 계사일 조에 “임금이 모화관에서 칙서를 맞이하였다. 먼저 근정전에 나가 4번 절하는 예식을 행하였다.”라고 하였다.

터 선조에 이르기까지 12대에 걸쳐 15차례나 사신을 파견하는 등 186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선조 24(1591)년에야 이루어졌다. 당시 홍문관, 예문관의 提學으로 同知經筵事를 겸하고 있던 그는 정사의 자격으로 부정사 윤근수, 서장관 윤탁연 등과 북경에 가서 종계의 개정과 악명변무의 사정을 명의 『世宗皇帝實錄』과 『續修會典新書』에 바로잡아 줄 것을 간청한 결과 허락하는 칙서를 받고 귀국하였다. 3년 뒤인 선조 21(1588)년 사은사로 간 유흥이 완성된 『大明會典』과 칙서를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종계변무 문제는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사후인 선조 24(1591)년 종계변무에 공이 큰 신하 19인에게 ‘輪忠貞誠翼謨修紀光國功臣(光國功臣)’이란 공신 책록이 있었는데, 그는 2등 공신으로 채록되었다. 조식의 문인으로 성리학에 뛰어났으며, 고결한 인품으로 이름났던 하각재 최항은 북경으로 떠나는 그를 위해 <送李相國季眞赴京>이란 작품을 남겼다.⁸⁾

社稷孤臣孰重輕	국가와 신하 무엇이 더 무겁고 가벼울 것인가,
星輶瀚海更西征	사신의 수레 사막 넘어 다시 서쪽으로 가네.
奸臣誤國差青史	간신이 나라를 망치고 역사를 그릇되게 했으니
聖派承源汚姓名	왕실 계파의 근원을 이어온 것에 이름을 더럽혔네.
蘇子十年持漢節	소무는 십년 동안 한나라 절개를 지켰고
申生七日哭秦庭	신포서는 칠일 동안 진나라 조정에서 울었다네.
精忠自是回天聽	순수한 충성이 이로부터 임금의 허락을 돌이키게 되리니
莫憚勞勞萬里行	혼신의 힘 다해 만 리 길 다녀오는 것 꺼리지 말게.

작품의 함련에 종계변무사로서의 이후백의 임무가 드러나 있다. 그의 역할은 역사를 호도하고, 왕가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인 잘못된 종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이후백을 한나라의 소무와 신포서에 비유하며, 미련에서는 그가 남다른 충정을 지닌 까닭에 종계변무를 허락받아 올 것

8) 이후백이 종계변무사로 중국으로 떠날 때 그를 전송하는 백광훈의 시 <奉別靑蓮先生>이란 작품은 ‘北闕歸期逼 江關去路遲 那堪雙鬢改 復與奮山辭 契合無今日 衷情自昔時 迂生深望幸 隨處問臯夔’와 같다.

이라는 확신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

조선 사신들은 중국을 오가며 조공을 통한 교역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학문 그리고 예술을 전해 준 한중 문화 교류의 전령사를 자임했다. 이후백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학문과 문화 등을 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신화와 전설 등에 남다른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장편의 고시로 작품화했다. 그의 7언고시 중 남원을 공간 무대로 한 <鐵狗行>과 그의 문학관을 표명한 <文章憎命達> 그리고 등용문이란 고사를 시화한 <大鯉上龍門> 등 3수를 제외한 나머지 7수는 모두 이 시기의 중국 현지 방문을 기초로 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볼 때, 그의 시문학적 경향과 중국 방문의 경험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 작품들 모두가 유교사상을 시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Ⅲ. 유교사상의 시적 형상화

1. 예악을 통한 덕치의 실현

유교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토대로 남을 다스리는 이른바 修己治人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에 유교에서 말하는 정치란 법률이나 형벌로써 백성들을 규율하는 법치주의보다는 도덕적 교리와 언행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덕치주의를 이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여긴다. 공자는 일찍이 덕치의 효능에 대해 “덕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은 제 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이를 떠받드는 것 같다”⁹⁾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은 면하되 염치를 모르게 된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염치를 알게 되고 또 바르게

9) 『論語』 爲政第二,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된다.”¹⁰⁾라고 하여 예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예치를 위한 수단으로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어 온 것은 음악이다. 이는 ‘예’가 한 인간의 행동 규범이자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규범이라면, ‘음악’은 성정을 닦아 학문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 임금들은 민심을 착하게 하고 풍속을 순화하는 데 음악을 사용해 왔다.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음악의 전형이 순 임금이 만들었다는 소악인 것이다.

이후백의 7언고시 가운데 <韶石>이란 작품은 순 임금이 그 돌에 얹어 ‘韶’라는 음악을 연주했던 관계로 후대에 ‘소석’이라 명명되었다¹¹⁾는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다.

咸池遺響久杳寂
洞庭波浪搖秋碧
愁雲鼎湖已斷腸
況復韶州見韶石
韶之方奏春繞石
律協八音純更繹
率舞鳥獸感神人
祥風鼓德吹遐域
韶之既闕雲鎖石
九成淪散山寥闕
猿鳴鳥嘯澗聲咽
空巖無處尋幽迹

‘함지’¹²⁾라는 남긴 음악 오래도록 적막한데,
동정호의 물결에는 가을 하늘 흔들리네.
시름 구름 鼎湖에 떠 이미 애가 끊기는데,
하물며 다시韶州¹³⁾에서韶石을 보다니.
韶樂이 막 연주되자 봄기운이 바위 감돌고,
8음¹⁴⁾으로 협연하자 순수하고 또 이어지네.
새와 짐승 춤을 추고 귀신 인간 감동하며
풍속 은덕 일으켜서 변방까지 불게 했네.
소의 연주 다 끝나자 구름이 바위 둘러싸고
九成¹⁵⁾이 흩어지자 온 산이 적막해져
원숭이도 울고 새도 울고 시냇물도 목이 메어
바위 빈 채 숨은 자취 찾을 길이 없게 됐네.

10) 『論語』爲政第二,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11) 『辭源』, “韶石, 山石名也. 指其山在廣東韶關市北, 相傳舜南巡, 登此石, 奏韶樂, 故名.”

12) 『辭源』, “咸池, 古樂名, 周禮春官大司樂: ‘舜咸池以祭地示’ 相傳爲堯樂, 禮樂記 ‘咸池, 備矣’ 疏說, 是黃帝之樂. 堯增修沿用.”

13) 『辭海』, “韶州, 州, 路, 府名. 隋開皇九年(589), 改東衡州置州, 以州北有韶石得名.”

14) 『辭海』, “八音, 中國古代對樂器的統稱, 指金石土革絲木匏竹八類.”

15) 『辭源』, 九成 多次演奏, 音樂奏完一曲叫一成. 書益稷: “籥韶九成” 疏: 鄭玄曰: 成, 猶終也 每曲一終必變更奏 故經言九成周禮之九變

重華當日豈徒哉
要用至音和乖逆
紛紛管絃賞山水
荒耽後世那堪責
悵望南薰不可見
西風日暮騎驢客
斜陽掛山石無語
回首九疑雲政白

순임금이 연주하던 당일 어찌 헛되리오?
至音이란 무질서를 화하는데 써야 하니
어지러이 관현에 올려 산수나 감상하면
荒淫에 빠진 후세 어찌 책망 하겠는가?
안타깝게 궁궐을 바라보나 보이질 않고
가을바람 해는 지고 나귀 타고 객은 가네.
석양빛은 산에 걸리고 바위는 말 없는 채
구의산¹⁶⁾에 고개 돌리니 구름만 정녕 희구나.

이 작품은 소악의 전설이 깃든 소식을 통해 음악에 의한 德治를 찬양한 것으로, 3단락으로 구성된다. 첫째 단락(처음~8구)은 소식을 찾은 감회를 통한 소악의 효과를 찬양한 부분으로, 순임금과 기와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이는 “음률은 성음을 잘 조화시킨 것이니, 8음의 모든 악기로 조화시킬 수 있으면 인륜을 빼앗을 수 없고 귀신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기가 말하기를 “아이! 제가 경을 치고 돌을 두드리니 여러 짐승들도 다 같이 와서 춤추더이다.”라고 하였다.”¹⁷⁾를 연상시킨다.

둘째 단락(9~14구)은 소식의 현재의 모습과 시공을 초월한 순 임금의 업적을 찬미한다. 이 부분은 숭고한 소악과 퇴폐적인 음악과의 대비를 통해, 후세인들을 경계하고자 한 의도다. 셋째 단락(15구~끝)은 시인의 감정을 드러낸 부분으로, 특히 마지막 2구는 백광훈의 시 <弘慶寺>에 등장하는 “秋草前朝寺, 殘碑學士文. 千年有流水, 落日見歸雲.”이란 구절을 연상시킨다.

공자는 일찍이 풍속을 순화하고 습속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게 없다¹⁸⁾고 했다. 음악이란 것은 성인들이 즐기는 것이어서 민심을 착하게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며 풍속을 순화하고 개

16) 『辭源』, 九疑 山名 史記五帝紀舜: “(舜)葬於江南九疑”…漢書武帝紀元封五年: “望祀虞舜于九疑” 在今湖南寧遠縣南

17) 『書經』, 「虞書 舜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 夔曰於予, 擊石拊石, 百獸率舞.”

18) 『孝經』, “移風易俗, 非樂莫善.”

량해 주기 때문이다.¹⁹⁾

공자는 덕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람들의 성정을 순화시키는 데 효용이 있는 음악을 이용했으며, 그를 실현시킬 음악으로韶樂을 들고 있다. 공자는 ‘韶’에 대하여 제나라 태사와 더불어 음악을 이야기하며 소 음악을 듣고는 이를 배우느라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니 제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송하였다.²⁰⁾ 나아가 “‘韶’ 음악은 아름다움을 다하였고, 또 착함을 다하였도다. 또 말하길 ‘武’ 음악은 아름다움을 다하였지만, 착함을 다하지는 못하였다.”²¹⁾라고 ‘韶’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교는 인의를 근본으로,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성취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덕을 갖춘 지도자를 요구한다. 음악을 통한 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순 임금에 대한 칭송과 찬양은, 이후백이 평소 간직해왔던 이상 정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는 재난이나 이변과 같은 하늘의 꾸지람에 덕을 닦아 보답해야 한다는 「因災異請修德以答天譴啓」를 올린 사실에서도 짐작된다. 한 마디로 이후백이 지향한 정치적 이상은 仁政에 근거한 요순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2. 효도와 의리 사상의 선양

흔히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한다. 유교에서 유난히 효를 강조한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야 말로 훌륭한 인간 감정의 바탕이 된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기에 유교의 대표적인 덕목인 仁도 그 근본은 효도와 우애에 있다.²²⁾고 보았으며, 심지어 효도와 우애를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19) 『孝經』,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深感人心, 其移風易俗, 故先王者, 其教焉.”

20) 司馬遷, 『史記』 卷47, 孔子世家 第 17, “與齊太師語樂, 聞韶音, 學之, 三月不知肉味, 齊人稱之.”

21) 『論語』 「八佾」,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22) 『論語』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

것을 정치의 요점으로까지 인식하였다.²³⁾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후백에게 효와 예는 몸에 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세라는 어린 나이로 양친의 상을 당해서도 상례에 어긋남이 없었으니, 실로 “親喪固所自盡也” “喪致乎哀而上”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乎”를 실천한 셈이다. 그의 효성은 남달라 24세 때, 조모인 홍씨 부인을 경상도에서 금릉의 박산촌으로 모셔와 함께 살았으며, 29세 때 조모의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묘막을 지키며 조석으로 문안할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미암 유희춘과 석천 임억령은 “그 분의 효성은 천성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 예전의 효자도 이에 넘어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²⁴⁾라고 칭송한 바 있다.

그러기에 심청에 해당하는 인물인 조아에 대한 그의 관심은 남달랐다. 다음은 조아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조아비’를 찾아 자신의 감회를 노래한 「曹娥碑」란 작품이다. 조아비에 관한 기록은 『세설신어』에 실려 있으나,²⁵⁾ 『회계전록』에서는 위무제와 양수의 고사에 대한 『세설신어』의 이야기를 부정하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²⁶⁾을 실고 있다.

蒼茫斷岸草離離
荒碑半倒龜趺危
苔衣深合字尙宛
披拂一一猶言之
娥年十四德成孝
自擬奉養無違離

아득하게 끊긴 벼랑 풀들은 무성하고
묵은 비석 반 기울고 귀부마저 위태롭네.
이끼 짙게 끼었지만 글자만은 뚜렷하여
하나하나 헤쳐 보니 오히려 말하는 듯.
조아 나이 열네 살 효의 덕행 이뤘으니
스스로 헤아려서 부모 봉양 어긋남 없네.

23) 『書經』 “書云孝乎 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24) 『靑蓮集』 下 「年譜」 戊申條, “柳眉巖希春 林石川億齡 相謂曰 純孝出於天性 古之孝子無踰於此”

25) 劉義慶 撰, 『世說新語』 11, 「捷悟」 3.

26) 『會稽典錄』, “孝女曹娥者, 上虞人. 父盱能撫節按歌, 婆娑樂神. 漢興安三年, 迎伍君神 泝濤而上 爲水所淹, 不得其尸. 娥年十四, 號慕思盱, 乃投瓜于江, 存其父尸曰 ‘父在此, 瓜當沈.’ 旬有七日, 瓜偶沈, 遂自投於江而死. 縣長度尚, 悲憐其義, 爲之改葬, 命其弟子邯鄲子禮, 爲之作碑.”

豈意郎罷不自重
 逆濤千頃爲沈屍
 江邊走哭雙眸枯
 一十七日精神疲
 哀哀此生不復見
 寧投波底魂相隨
 却訴馮夷覓父屍
 依然抱出江之湄
 遺骸免被魚鼈食
 天實使之非人爲
 何人刻立三丈石
 美迹載以瓊瑤詞
 雨蕩霜磨神鬼護
 千年留與騷人悲
 停驂讀罷一回顧
 茫茫落日江無涯

어찌 생각 하였으랴? 부친 재주 자중 못해
 천경 파도 맞이하다 물에 잠긴 시체 될 줄.
 강변 나가 곡하다가 두 눈 눈물 다마르고
 열하고 이틀 만에 정신마저 다 지치니,
 애답다! 이생에서 다시 뵈지 못할 바엔
 파도 속에 몸을 던져 넋이라도 따르리라.
 水神에게 호소하여 부친 시신 찾아내어
 의연하게 끌어안고 강가로 꺼내 와서
 유해가 물고기들 밥이 될 걸 면했으니
 실로 하늘 시킨 바지 인위는 아니었네.
 그 누가 세 길의 비석 새겨 세웠는가?
 구슬 같은 글귀로써 고운 흔적 실어 났네.
 비에 씻기고 서리에 덮아도 귀신이 보호하여
 천년 뒤에 남겨놓아 시인에게 슬픔 주네.
 말 멈추고 다 읽고서 한 차례 돌아보니
 가물기물 해는 지고 강물마저 끝이 없네.

작품은 3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단락(1~4구)은 쓸쓸한 조아비의 모습과 선명한 글자와의 대비를 통해 효를 찬양한다. 둘째 단락(5~16구)은 조아가 14세의 나이로 아버지의 시신을 찾게 된 것이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하늘의 덕임을 강조한다. 셋째 단락(17구~끝)은 조아비를 바라보는 시인의 무상감을 드러낸다. “雨蕩霜磨神鬼護, 千年留與騷人悲”는 효는 귀신도 감동시킨다는 말의 함축적 표현이다.

유교의 덕목으로 仁과 병칭되는 것은 義다. 의란 인을 실천하기 위한 합당한 행동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군자는 의를 으뜸으로 여긴다.²⁷⁾ 충성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의로 옳아가는 것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²⁸⁾라고 하여 의를 따라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자도 의를 듣고도 옳기지 못함²⁹⁾을 걱정할 정도로 실천이 쉽지 않다. 이후백은 옥 같고 얼음 같은

27) 『論語』「陽貨」「君子義以爲上」

28) “主忠信 徙義 崇德也”

지조를 지닌 선비의 모습을, 절의를 지키려다 비운에 죽은 禰衡을 그리는 <鸚鵡洲>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다.

黃鶴樓前鸚鵡洲
 涵天碧江平如油
 蘆花兩岸雪紛披
 遊人正值西風秋
 禰君遺塚今何處
 白沙十里迷寒眸
 當年才調天下奇
 名動四海驚凡儔
 如何到處不見容
 將身屢陷曹劉謀
 終然江夏謾罹殃
 冤骨葬處烟波幽
 平生一賦人所慕
 揭作洲名千古愁
 楓林迢遞芳草歇
 詞魂日暮應夷猶
 停驂此日訪陳迹
 灑淚蘋渚心悠悠
 空學些吟擬楚招
 吳天萬里愁雲浮

황학루 다락 앞에 앵무주가 펼쳐지니,
 하늘 담은 푸른 강은 기름인 듯 평평하네.
 갈대꽃 흰 양쪽 언덕 눈 날리듯 펼쳐지니
 나그네 바로 서풍 부는 가을을 만났구나.
 예형의 남긴 무덤 지금 어디 있는 건가?
 흰 모래밭 십리 길에 찬 눈동자 헤매이네
 당년에 그의 재주 천하에 기이하여
 이름이 사해 떨쳐 범인들을 놀라게 했네.
 어찌하여 간 곳마다 용납되지 못하고서,
 몸이 자주 조조·유표 모략에 빠졌는가?
 마침내 강하태수 모함으로 재앙에 걸려
 원통한 뼈 묻힌 곳에 연무만이 자욱하네.
 평생 지은 한 편의 부 사람들이 사모하니
 앵무주로 이름 지어 천고의 시름됐네.
 단풍 숲은 아득하고 방초마저 말랐는데
 문인 냇은 이 황혼에 아마도 헤매리라.
 말을 멈춘 오늘날에 과거 자취 찾아와서
 부평 뜬 물가 눈물 뿌리니 마음마저 아득해라.
 부질없이 이 시 읊어 초은사를 흥내내니
 뭇 땅 하늘 만 리에는 시름겨운 구름 떴네.

詩題인 鸚鵡洲는 현재 호북성 한양현 서남 장강 가운데 떠 있는, 禰衡이 지은 「鸚鵡賦」란 賦로 인해 명명된 섬이다³⁰⁾. 예형에 관한 고시는 『세설신어』³¹⁾와 『후한서』³²⁾에 각각 실려 있다. 이 작품은 4단락으로 구분되

29) “聞義 不能徙”

30) 『辭源』, “鸚鵡洲, 在今湖北, 漢陽縣西南長江中. 後漢末, 黃祖爲江夏太守, 祖長子射, 大會賓客, 有人獻鸚鵡, 禰衡作賦, 洲因以爲名.”

31) 劉義慶撰, 「世說新語」2, 「言語」8. “禰衡被魏武, 謫爲鼓吏. 正月半試鼓, 衡揚枹爲漁陽桴, 淵淵有金石聲, 四座爲之改容. 孔融曰 ‘禰衡罪同胥, 靡不能發明王之夢, 魏武慚而赦

는데, 첫째(1~4구)·둘째 단락(5~6구)에서는 앵무주의 가을 경관과 예형의 모습을 묘사한다. 셋째 단락(13~16구)에서는 예형이 앵무주란 이름으로 시인들에게 시름을 남기게 된 사실과 그의 시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그의 대표작인 <앵무부>는, 재주를 지닌 선비가 말세에 태어나 겪는 내심의 비애와 한말의 어두운 사회를 비판한 우수한 작품으로 『文選』에도 실려 있다.³³⁾ 넷째 단락(17구~끝)에서는 시인의 무상감을 드러낸다. 시인은 그에 대한 추모의 정으로 『楚辭』의 <招隱士>를 읊조린다. 최호의 <黃鶴樓>란 시³⁴⁾ 중의 “芳草萋萋鸚鵡洲”와 관련된 <초은사>의 “王孫悠兮不歸, 春草生兮萋萋.”의 구절이리라.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전통 윤리 사상은 바로 의리정신이라 할 수 있다. 정몽주를 동방이학의 조로 추앙한 것도 사실 학문에 못지않은 의리 정신을 높이 평가한 까닭이다. 정몽주의 충절을 위한 죽음은 천리를 이해하고 인의를 행한 유교 이념의 실현을 보여준³⁵⁾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조선을 대표하는 청백리로 선정될 만큼 자신에 엄격했던 이후백의 선비정신은, 바로 이러한 의리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전통적인 의리정신을 계승한 이후백의 선비정신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 모습 그대로였다. 이는 51세 때인 선조2(1569)년에 왕의 교지를 받들어 김광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등으로 이어지는 도학의 연원과 도통이 전수된 연유를 명쾌하게 밝힌 「國朝儒先錄序」를 지은 것이나, 율곡 이이와 더불어 을사사화 때의 훈신의 공훈과 관작을 삭탈하는 교지를 담은 「削勳頒敎文」을 반포케

之.”

32) 『後漢書』 80, 「禰衡傳」.

33) 蕭統 編, 『文選』.

34) 崔顥, 『黃鶴樓』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還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

35) 심우섭, 「여말선초 성리학 사상의 현대적 조명」, 『韓國思想과 文化』 제2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한 것 등에서 증명된다. 또한 승정원의 동부승지 시절에는 임금에게 사사로이 제물을 바치는 지방 수령을 탄핵하는 「請杜私獻啓」를 올려 임금의 허락을 받아낸 사실은 직언으로 충성을 다해 사직의 기반을 다졌던 의리 정신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3. 비현실성에 대한 부정

유교는 철두철미하게 현실적인 삶을 다룬다. 유교는 오직 현재 살아가는 인간의 삶만을 중요시할 뿐 전생이나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묻자 공자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³⁶⁾라고 답했으며, 죽음을 묻자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³⁷⁾라고도 했다. 나아가 “공자는 괴이한 것, 힘에 관한 것, 난동 귀신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³⁸⁾ 이후백은 “현실에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그 실천이 돈독했으며, 지조를 지키고 덕을 함양하는 공부에 전력을 기울였던” 정통 유학자로서 괴력난신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楚襄王과 高唐 陽臺夢의 이야기로 ‘朝雲暮雨’의 속어가 되기도 했던 ‘巫山神女’를 제재로 한 <巫山神女廟>란 작품을 보기로 한다.

天邊碧峰橫十二
遊人暫憩楓林間
陽臺夢罷雲雨散
尙有遺廟留孱顏
錦衾瑤席無處尋
壁間古畫苔斑斑

하늘가 푸른 산 가로누운 열두 봉에
나그네는 단풍 숲 사이에서 잠시 쉬네.
양대의 꿈을 깨고 운우마저 흩어져도
오히려 사당 남겨 쇠한 얼굴 머물렀네.
비단 이불 구슬 자리 어디에서 찾을 건가?
벽 사이 낡은 그림 이끼 끼어 아롱졌네.

36) “未能事人 焉能事鬼”

37) “未知生 焉能事”

38) “子不語怪力亂神”

藤蘿引蔓補屋罅
寒溪繞戶鳴潺潺
時將羞澁能幾薦
行人旁午來躋攀
當年神艷是虛幻
夢魂一去難復還
終世然人指爲實
廟宇無乃憑神姦
好怪末俗何足道
悠然獨倚碑石頑
雲間猿叫聽未了
一陣行雨過前山

등나무 넝쿨 뺨어 지붕 틈을 막고 있고
차 시내는 집을 돌아 졸졸졸 울리누나.
때때로 제수 갖고 몇 번이나 바쳤는가?
행인들은 요란하게 찾아 와서 올라가네.
그 때의 절대 미색 허깨비가 되었으니
꿈속 닮은 한 번 간 뒤 다시 오기 어려워라.
끝내 세인 그 이야기 진실이라 수궁하니
묘당에는 간사한 귀신 불음 없다 하랴?
알곳은 것 좋아하는 말속 뭐라 할 것 있나?
물끄러미 굳은 비석 홀로 기대 서있을 뿐.
구름 사이 원숭이 외침 미처 다 듣기 전에
한 자락 내리던 비 앞산을 지나가네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雲雨之樂’이란 말의 유래가 되었던 이야기로, 『文選』에 수록된 송옥의 <고당부> 서문에서 연유된 것이다.³⁹⁾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陸游의 <入蜀記>에도 전한다.⁴⁰⁾ 이와 같이 <고당부>와 <입촉기>로 인해 전해진 ‘무산신녀’의 이야기는 후대 문인들의 작품뿐 아니라, 우리의 시조에까지도 그 이름이 전할 정도였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단락(1~12구)은 시인이 찾은 무산신녀묘의 퇴락한 모습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둘째 단락(13구~끝)은 무산신녀에 대한 시인의 견해를 통해, 괴력난신을 추종하는 말세적 풍속을 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끼만이 가득한 무산신녀묘와 담쟁이덩굴만이 틈을 메우고 있는 사당의 황폐한 모습은, 허황된 이야기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아울러 허황된 얘기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책은 괴력난신을 부정하는 철저한 유가로서 모습이다. 공자가 주장한 “不說怪力亂神” 그대로 ‘怪’와 ‘神’에 속하는 무산신녀 같은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39) 蕭統 編, 『文選』 卷第19, 「高唐賦一首竝序」 참조.

40) 陸游, 『渭南文集』 48권, 「入蜀記」

이런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질타는 <銀橋>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由來君道不外求	원래부터 임금 도란 밖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貴用至德臨臣民	지덕으로 신민에게 임하는 게 귀한 것을.
承調日月足云美	조화 이은 세월이면 아름답다 할만한데
詎向物外仙爲隣	어찌하여 물외 향해 신선과 이웃했나?
胡爲一身慕清靈	어찌하여 한 몸 위해 청령을 사모하여
禁闥引接方術倫	궁궐 안에 방술 하는 무리들을 끌어다가
觀燭廣寒復游月	광한전을 구경하며 달세계를 유람하며
役意荒怪何其頻	황당한 일에 뜻 부림을 어찌 그리 자주하니
終然國步際顛倒	결국에는 국가 운명 전도되게 하였으니
銀橋無賴扶傾淪	은교란 것 쓸데없이 국가 몰락 도왔구나.
風流爭似趙知微	풍류어린 그 모습이 조지미와 그리 같나?
秋空翳月誠堪嘖	가을 하늘 가려진 달이 진정으로 성내겠네.
携筇步上天柱峰	지팡이 잡고 천주봉에 걸어서 오를망정
不用銀橋訪上眞	은교를 이용하여 신선 찾을 필요 없네.

이 작품의 제목인 은교란 선술 속에 등장하는 다리로 『太平廣記』에 기록되어 있다.⁴¹⁾ 작품은 크게 2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문단(1~36구)은 생략된 부분으로 객관적 묘사가 두드러지며, 둘째 단락(37구-끝)은 철저한 유자로서의 견해를 밝힌 부분이다. 임금의 도리인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이, 신선을 사모하며 궁중에 도사를 끌어들이는 데 대한 매서운 질책을 가한다. 이어 밝은 달빛을 즐기자 참괴한 일에 마음을 둔 것이 왜 그리 빈번했느냐고 반문하며, 정작 나라가 기울어질 시기엔 銀橋란 망국을 재촉하

41) 『太平廣記』卷第22, 神仙22, 「羅公遠」, “開元中 仲秋望夜時, 玄宗於宮中翫月. 公遠奏曰: ‘陛下莫要至月中看否?’ 乃取拄杖, 向空擲之, 化爲大橋, 其色如銀. 請玄宗同登, 約行數十里, 精光奪目 寒色侵人. 遂至大城闕. 公遠曰: ‘此月宮也.’ 見善女數百, 皆素練寬衣, 舞於廣庭. 玄宗問曰: ‘此何曲也?’ 曰: ‘霓裳羽衣也.’ 玄宗密記其聲調. 遂回, 却顧其橋, 隨步而滅. 且召伶官, 依其聲調, 作霓裳羽衣曲.”

는 허황된 것에 불과했다고 비난한다. 나아가 唐의 술사인 趙知微와 같은 풍류와는 달리, 가을 하늘의 달조차도 그런 행위를 꾸짖을 것이니, 차라리 지팡이를 짚고 衡山의 天柱峰에 오르지언정, 은교를 타고 신선을 찾는 무모함은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성리학을 모든 윤리와 가치의 기준으로 단정하고, 이에 어긋난 것은 모두 이단이고, 이단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백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불교나 도교에 대한 확고한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同知慶筵事로 재직중이던 53세 때인 선조5(1572)년 진강을 끝낸 후 주자의 감흥시로 소동파의 시와 바꾸기를 칭하는 주42)를 올린 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소동파가 선학에 바진 이단으로, 그의 문학 또한 화려하나 열매가 없고, 기이하긴 하나 바르지 못하여 修身齊家나 致君澤民에 기여할 수 없다43)는 유학자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IV. 나오는 말

이후백은 호남학당의 선구자로 당시 시단을 당시풍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3당시인 중 백광훈과 최경창을 자신의 문하에서 배출시킨 인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사적 업적에 비해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국문시조인 <소상팔경가>나 근체시에만 집중되어, 장편의 고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후백의 고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언고시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시인의 시 세계와 그 실상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를 낳게 된 시인의 경험 세계도 주

42) 『靑蓮集』, 「年譜」 壬申條, “時請以朱子感興詩易東坡詩”

43) 김상홍, 「다산의 소동파론」, 『남명학연구』 18, 경상대남명학연구소, 2004.

목하고자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후백은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자라나, 20여 년간을 관직에 머무른 관료 문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다수의 문인들처럼 문과도를 일치시키는 ‘도문관’이나 ‘문이재도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문학 작품의 내용에 유교사상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유교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절구나 율시로 대표되는 근체시보다는 장형의 고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언고시의 경우 <철구행>을 제외한 모든 작품이 중국의 신화나 전설 혹은 고사성어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는 2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7언고시에 나타난 유교 사상을 구체적 작품을 통해 살핀 결과, 순 임금의 음악을 연주했다는 전설을 지닌 <소석>에서는 음악을 통한 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순 임금에 대한 칭송과 찬양을 통해 仁政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심정에 해당되는 조아란 효녀를 제재로 한 <조아비>를 통해서도 유교의 대표적 덕목인 인의 기본이 되는 효도를, 절개를 지키려다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예형이란 인물을 다룬 <앵무주>를 통해서도 仁과 병칭되는 義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산신녀묘>와 <은교>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신선이니 도술이니 하면서 혹세 우민하는 허황되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냉엄한 질책을 가함으로써 괴력난신과 같은 비현실적인 것을 부인하며, 오로지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만을 직시하는 정통 유학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후백은 장편의 7언고시라는 형식을 빌려, 유교의 구체적 덕목에 어울리는 중국의 신화와 전설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덕치를 실현하고, 효도나 의리를 선양하며, 괴력난신으로 대표되는 비현실적인 것을 부정하고자 했던 정통 유교인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중국 방문의 경험이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宣祖實錄』.
국역청려집간행회, 『國譯靑蓮集』, 1992.
중화학술원, 『中文大辭典』, 1985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67
김상홍, 「다산의 소동파론」, 『남명학연구』 18, 경상대남명학연구소, 2004.
김창협, 『農巖全集』, 경문사 영인, 1980.
김학주, 『공자의 생애와 사상』, 1997.
심우섭, 「여말선초 성리학 사상의 현대적 조명」, 『韓國思想과 文化』 제24집, 한국
사상문화학회, 2004.
유명중, 『韓國思想史』, 이문출판사.
이병도, 『韓國儒學史』.
이병한,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3.
이후백, 『청려집』, 일본동양문고본.
임동석 역, 『세설신어』, 교학연구사, 1989.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3.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84.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 아세아문화사, 1995.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A study on Confucianism expressed in the 7-word ancient poems of Lee Hu-baek

Kim, Dong-ha

Chongnyon Lee Hu-baek was an honest officer who served the Ministry of King Sonjo of the Chosun Dynasty. At the same time, he was one of the famous writers during the reign of King Myongjong. Especially, he was an eminent poet in those days.

As is generally known, Lee Hu-baek was a central figure in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Song poetic style to the Tang poetic style, marking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im Chang-hyop, the remarkable critic of the latter half of Chosun Dynasty, esteemed him as the pioneer of the Tang poetic style. But, as he liv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the two characteristics of Tang poetic style and Song poetic style was found out at once in his poems, reflecting the phases of the times.

Lee Hu-baek was brought up from the Confucian family. In a word, he was an traditional Confucianist. He had a special opportunity to visit China during his life. He had met many Chinese scholars, politicians, and writers there. Through his visit to China, he had a special interest in Chinese myths, legends, and folk-tales. He wrote the ten 7-word Chinese ancient poetry.

In this paper, I dealt with the five 7-word ones among these long 10 7-word Chinese ancient poetry. The names of these poetry are 'So-seok, Choa-bee, Yangmoo-ju, Musansunnyo-myo, and Eun-gyo'. As an traditional Confucianist, he tried to show his Confucian ideology and

thought. The core virtues of Confucianism expressed in his poetry were the realization of virtuous politics through decorum and music, enhancement of filial piety and justice, and denial of uncertainty.

Keywords: Confucianism, ancient poetry, realization of virtuous politics, enhancement of filial piety and justice, denial of uncertainty

K C I